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

- 매교시 종료 후 탑재됩니다.(중증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시간 기준)
- 모든 문제 및 정답은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단, 듣기 파일은 MP3파일)
- 탑재된 파일은 수험생에게 제공된 문제지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에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네의 편지는 잘 읽었는데, 나의 생각은 자네와 다르다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분별[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 분별에는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분수를 지키는 것에는 예(禮)보다 큰 것이 없네. …(후략)…

- ① 모든 인위적인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 ②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③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본성을 변화시켜 예의와 법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일체의 욕구를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에게서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① 갑: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 ② 갑: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 ⑤ 갑, 을: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불효자도 효자라고 칭찬하면 기뻐한다. 사람은 본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불효자도 실제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 사람들이 선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한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天理]이자 마음의 경향성이다.
- 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선행이나 악행을 할 수 있다.
- ㄷ. 선한 행위는 본성에 내재된 사덕(四德)을 실천하는 것이다.
- ㄹ. 형구(形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성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성의 지시를 언제나 간직한다. 이성이 기개를 지배하고, 기개는 이성에게 복종하며 협력해야 한다.
을: 용기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 무모하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 비겁해 보인다. 양극단의 두 성향은 대립적이며,中间的 성향은 양극단의 두 성향과 대립적이다.

- ① 갑: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행복에 이바지할 수 없다.
- ② 갑: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해야 한다.
- ③ 을: 덕 있는 행위는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④ 을: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여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덕을 이성으로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생(衆生)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그것은 다만 허망한 요소들의 집합일 뿐, 거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여러 부품이 합해져 있는 것을 세간에서 수레라고 하듯이 오온(五蘊)이 인연에 따라 화합한 것을 잠시 중생이라 부를 따름이다.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가로 열쇠] (A): 민간 신앙, 불교 및 도교가 결합된 종교의식으로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양대 행사 중 하나 (B): 공평하고 올바름. 예) ‘○○ 무역’ (C): 도가와 도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저술로서 “노자”라고도 불리는 경전</p> <p>[세로 열쇠] (A): ……개념</p>

- ① 자신의 업에 따라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 ②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 ③ 중도의 수행 방법으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을 뜻하는 말이다.
- ④ 모든 존재는 더불어 존재하며 인연에 따라 생멸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6. 중세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은 자연적 성향을 가진 모든 것을 선(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을: 신을 열망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至福)을 바라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되지만,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된다.

—<보 기>—

ㄱ. 갑: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에 근거하여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ㄴ. 갑: 믿음·소망·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 덕을 함양해야 한다.
 ㄷ. 을: 신은 악을 창조하여 자유로운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ㄹ. 갑, 을: 완전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각각 구분해서 말하면 사단에 있어서의 이(理)는 칠정에 있어서의 기(氣)의 관계와 같다. 사단이 바깥 사물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도 칠정의 경우와 같다. 다만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을: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칠정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사단은 다만 선한 정의 다른 이름이니, 사단은 칠정 안에 있는 것이다. 어찌 사단과 칠정의 양변이 있겠는가?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이와 기는 모두 발하는 것이며, ㉡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을은 ㉢ 이는 발하게 하는 까닭일 뿐 스스로 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경건한 마음[敬]을 항상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성인(聖人)은 백성들이 간교한 지혜와 욕심을 품지 않게 하고, 무위(無爲)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현자를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을: 지인(至人)은 만물을 각자의 본성에 맡겨 두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무궁하게 노닐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이 없다. 소요(逍遙)의 경지는 지인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보 기>—

ㄱ.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ㄴ. 인의의 덕을 수양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하는가?
 ㄷ.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ㄹ.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素樸)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나의 앎을 다하고자 함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치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야 한다.
 을: 만약 ‘격물’을 ‘천하 만물 모두를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천하의 만물을 어떻게 다 연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초목에 대하여 연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격’은 ‘바로 잡는다[正]’의 뜻으로, ‘물’은 ‘일[事]’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 ① 갑: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② 갑: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치도 앎을 뿐만 아니라 사물[事]도 없다.
 ④ 을: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다.
 ⑤ 갑, 을: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해야 이상적 인간이 된다.

10.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을: 보편적 권리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배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①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살아야 하는가?
 ② 윤리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③ 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가?
 ④ 배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도덕적 덕목인가?
 ⑤ 윤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1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정부에 복종한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부 제도 수립의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 ① 안전한 삶은 정치 공동체가 없더라도 항상 쉽게 향유할 수 있다.
- ②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다.
- ③ 국가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도 항구적인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 ④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 ⑤ 정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 정치적 의무가 있다.

12. 한국 불교 사상이자, 율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라고 하였다. 일심(一心)이 미혹되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며, 일심을 깨달아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결사(結社)를 통해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을: 모든 존재는 생멸 없이 본래 적정(寂靜)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를 ‘진여문’이라 한다. 이 일심의 본체는 본래 깨달아 있지만 무명(無明)에 따라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멸문’이라 한다. 이러한 생멸문에서는 여래의 본성이 숨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보 기>

- ㄱ. 갑: 화두를 활용한 선(禪)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 ㄴ. 갑: 참마음의 본체는 지혜이고, 참마음의 작용은 선정이다.
- ㄷ. 을: 일반 백성들도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
- ㄹ. 갑, 을: 불교계의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서양 사상이자, 율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 ① 갑: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② 갑: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 ③ 을: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 ④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 ⑤ 갑, 을: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14. 근대 서양 사상이자, 율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는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내던져 버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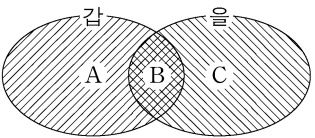
을: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실체로 이해한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보 기>

- ㄱ. 갑은 사유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 ㄴ. 을은 참된 행복이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 ㄷ. 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을 자연이 아니라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자, 율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
(나)	<div><div><p><범례></p><p>A: 갑만의 입장</p><p>B: 갑, 을의 공통 입장</p><p>C: 을만의 입장</p></div></div>

<보 기>

-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체가 분해되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을 추구하는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 가장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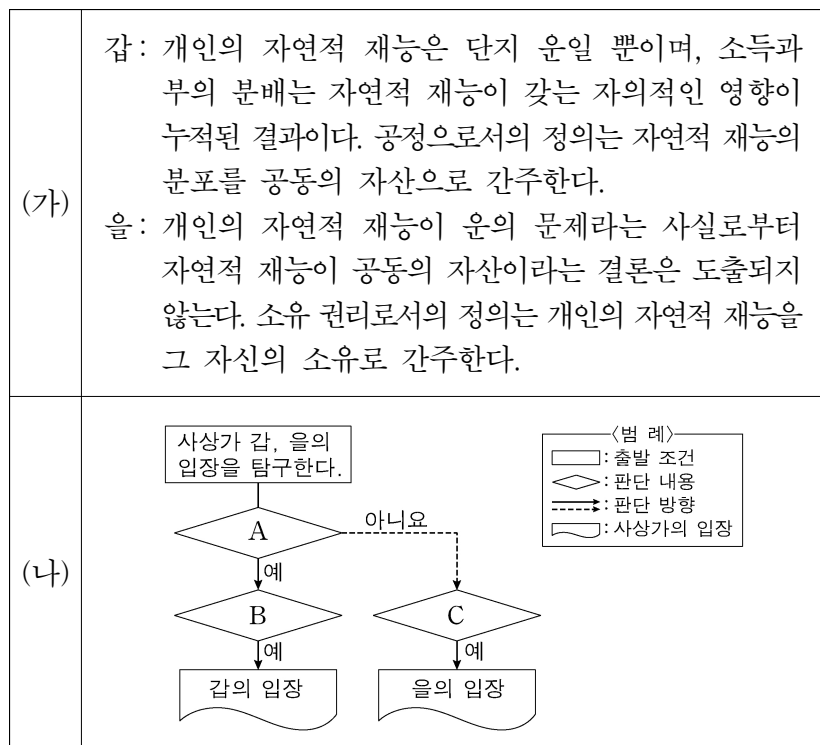
갑

죽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신체도 자연 만물처럼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심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적절한 태도는, 죽음에 무관심하거나 죽음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을

- ① 갑: 쾌락을 누리면서도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는 불가능하다.
 ② 갑: 죽음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다.
 ③ 을: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념에서 비롯된다.
 ④ 을: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통해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⑤ 갑, 을: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은 유덕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ㄷ. C: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C: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절망할 수 있음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런데 사실 절망은 큰 불행이며 타락이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며, 신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며, 본래적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이다.

- ① 갑: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도 절망할 수 있다.
 ② 갑: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심미적 실존 단계에 속한다.
 ③ 을: 현존재인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④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⑤ 갑, 을: 인간은 독자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실존을 깨닫는다.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모든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을: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입도식은 한울님을 깊이 모시겠다고 깊이 맹세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의혹을 깨뜨려 없애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 ① 갑은 불교 개혁을 통해 불법(佛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② 갑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을은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④ 을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⑤ 갑, 을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20.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생산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불과하다. 국가는 계획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작은 정부로 회귀해야 한다.

- ① (가)는 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의 양립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② (가)는 모든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지향한다.
 ③ (나)는 복지 정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을 지지한다.
 ④ (나)는 규제 완화 정책이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침해함을 강조한다.
 ⑤ (가), (나)는 시장 내의 경쟁이 공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